

'G-페스타 광주' 봄·여름 축제 내일 팡파르

6월28일까지 12개 축제·행사 67일 대장정
미식+피크닉·인문+산책·에너지+체험
지역 상권 연계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강화

화사한 봄부터 싱그러운 초여름까지 광주 도심 전체가 먹고, 즐기고, 머무는 설렘 가득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광주시는 23일부터 6월28일까지 67일간 도시 전역을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모시키는 'G-페스타 광주 2026' 봄·여름 시즌의 화려한 막을 올린다.
지난해 관광객 유치와 도시 이미지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던 'G-페스타 광주'가 올해 더욱 진화했다.

단순히 행사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미식·인문·에너지'라는 3개 색깔을 더해 관광객들이 광주의 매력에 푹 빠져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플랫폼'을 선보인다.
봄·여름 시즌은 총 12개 축제·행사가 참여하며 '미식+피크닉', '인문+산책', '에너지+체험' 3개 주제로 운영한다.
주제별 대표 축제를 중심으로 콘텐츠의 밀도를 높여 도시 전역을 하나의 유기적인 축제 공간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미식+피크닉'은 '봄날, 광주를 맛보다'를 주제로 식도락 여행가들을 위한 맛있는 유혹이 펼쳐진다.
양동전통시장의 정을 나누는 '양동통매축제'부터 호남 최대 규모의 '광주식품대전', 전국의

술을 한자리에 모은 '주류관광페스타'까지 광주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방문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미식 콘텐츠가 풍성하게 준비된다.
'인문+산책'은 '간다, 광주를 만나다'를 주제로 광주의 정체성인 인문·민주·평화의 가치를 만나는 시간이다.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원에서 열리는 '오월광주, 민주주의 대축제'를 비롯해 '세계인권도시포럼', '무등산 인문축제'가 인문도시 광주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에너지+체험'은 '지금, 광주를 즐기다'를 주제로 청춘의 에너지를 담은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국내 최대 규모의 스트리트댄스 축제인 '스트릿컬처페스타'를 중심으로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할 '하우펀(HOW FUN)', 영화의 바다

'광주독립영화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일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광주시는 동명동·무등산권역(동권)과 상무지구·김대중컨벤션센터권역(서권) 등 권역별 맞춤형 관광코스를 제안했다.
단순한 관람에서 벗어나 축제장 인근 상권을 이용하고 인근 관광지를 탐방하는 '초밀착형 관광 모델'을 구축할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방문객들이 광주의 미식을 보다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광주시가 '광주맛집'으로 선정해 '오매광주 광주관광'에 수록된 추천 식당 정보를 정보누리(QR) 코드로 제공하는 등 미식 관광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또 5·18민주광장, 무등산, ACC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관광 동선을 구성해 방문객이 축제

와 관광, 소비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객을 위한 혜택도 풍성하다. 축제 참여 인증 이벤트, 전시 사진 촬영 혜택은 물론 광주송정역 내 지역먹거리 반짝매장(팝업스토어) 등과 연계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광주시는 광주관광공사, 각 축제 개최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홍보마케팅과 콘텐츠를 연계해 축제 간 동반 상승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G-페스타 광주'는 도시 전체를 거대한 축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통합 플랫폼"이라며 "올해 봄과 여름에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더 오래 머물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추천했다. /변은진 기자



사랑의 '孝 헤어데이' '효(孝) 헤어데이' 행사가 21일 광주 남구 주월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려 주월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어르신들의 머리를 다듬고 있다. <광주 남구 제공>

광주시, 장마철 대비 침수 취약지 점검

광주시는 21일 "장마철을 앞두고 6월 말까지 재해복구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관리하기 위한 '여름철 호우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복구 신안교 주변과 남구 백운교차로 등 침수취약지역을 중

점 관리하고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점검을 통해 지난해 호우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복구사업 추진 상황, 집중호우 발생 시 피해 예방 대책, 수해 예방 시설·자재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다. 특히 신안교·백운교차로 주변에 대해서는 배수시설 정비, 주민 대피 계획 수립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자치구와의 합동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변은진 기자

전남도, K-푸드·뷰티 앞세워 日시장 공략

도쿄 소비재전 지역중소 10개사 참여
105만달러 규모 수출 MOU 5건 성과

전남도는 21일 "일본 도쿄 선사인시터에서 지난 18일까지 3일간 열린 'K-프리미엄 소비재전(KOREA EXPO)'에 참가해 지역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현지 마케팅을 집중 추진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일본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K-푸드, K-뷰티 등 유망 소비재를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남도는 참가 기업 모집부터 버스 운영, 현

지 상담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뒷받침했다.
행사에는 식품기업 5개 사와 뷰티기업 5개 사 등 총 10개 기업이 참여해 건강식품, 간편식, 기능성 화장품 등 일본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보이며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현장에서 다수의 바이어 상담과 수출 협의가 이뤄져 총 5건, 105만달러 규모의 수출 MOU 성과를 거뒀다. 친환경 기능성 화장품 기업의 경우 일본 홀소빙 바이어와 입점 협의를 진행하는 등 향후 실질적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일본은 K-소비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핵심

시장으로 이번 박람회는 도내 기업의 현지 시장 적합성을 확인하고 향후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신원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일본은 지리적 접근성과 소비자 수요 측면에서 중요한 수출시장"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기업의 안정적인 일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수출 성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등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양시원 기자

6-3 지방선거 <1>

Q&A

Q 지방선거는 어떤 선거인가?

A 지방선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살림을 책임질 '우리동네 대표'들을 뽑는 선거로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원'을 선출합니다.
-교육감선거 동시 실시 : 2007년 직선제로 전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

Q 지방선거 선거일과 선출된 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은 6월3일이고 사전 투표일은 5월29-30일 이틀간입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 투표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나 선거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 (2026년 7월1일-2030년 6월30일)입니다.

Q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A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2026년 4월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2026년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합니다.
※ 상황에 따라 국민투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수도 있음.

/자료 광주선거관리위원회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광주교통문화연구소가

“대·자·보”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사업용 운전자(택시, 버스, 화물 등) 법정교육으로 대·자·보 시행을 위한 교통 문화 정착
- 어린이교통공원(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는 유년 시절부터 “대·자·보” 교통안전 체험교육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찾아가는 어르신교육으로 대자보 교통안전 의식 전환 운동
- TBN 교통방송과 함께하는 대자보 인문학 강의
-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협업을 통한 미래 기후 교통 환경 대응 역량 강화
- 학생(초·중·고)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킥보드 문화 정착

교통안전캠페인

운수 종사자 교육

어르신 교육

학생 교육

어린이 교육